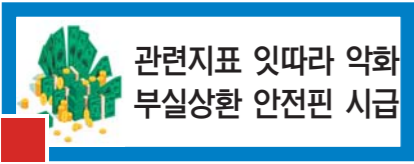


금융 취약계층 증가...지역경제 뇌관 우려

탐나는전 할인 재개에도 암울



관련지표 잇따라 악화 부실상환 안전핀 시급

4월 기준 개인회생 563건
최근 5년 평균대비 1.5배
제정여건 한계 도달 분석
도 이자부담 완화 지원 등

제주지역 금융 취약계층 지표에 잇따라 '빨간불'이 켜지면서 지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4월 기준 올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모두 563건이다.

이는 최근 5년(2018~2022년) 동기간 평균 370.8건 대비 51.8% 증가한 수준으로,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600건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총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18년 987건 △2019년 1189건 △2020년 1177건 △2021년 1096건 △2022년 1244건 등이다.

올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여파와 2021년 하반기부터 1년 반동안 이어진 고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운반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고금리 대안자금과 제주도가 운영하는 금융 취약계층 소액대출 상품 수요도 수년째 지속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운영하는 '햇살론1

5'의 제주지역 공급액은 최근 3년(2020~2022년)간 171억원에서 237억원으로 38.6% 증가했다.

도차원 금융 취약계층 소액대출 상품인 '제주흔디론' 신청 건수 역시 △2018년 304건 △2019년 513건 △2020년 535건 △2021년 658건 △2022년 794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3월 기준으로 200건의 신청이 접수되면서 연내 800건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최근 금융지표가 크게 악화된 이유는 지속된 금융난에 더해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정부가 오는 9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렸던 코로나19 금융지원 기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1

0월 이후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에 도는 올해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제주흔디론 대출 재원을 확대 투입, 대출금리를 기존 연 4%에서 1%대로 인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햇살론15 등 정부의 고금리 대안자금을 상환중인 도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상환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명동 도 경제활력국장장은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완화해 고금리·불법 사금융권 이용 등으로 재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고금리 대안자금 상환 지원을 통해 상환의지가 있는 서민가계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현재 혜택 얼마 못가 중단도, 예산 확보 청사진 없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예산갈등으로 중단됐던 탐나는전 현장할인이 재개됐다. 당장 급한 불은 꺼지만 정부 기조와 도 재정 상황을 볼 때 앞으로 탐나는전이 지속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도는 도의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따라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정책을 8일 0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으로 결제하면 5~10%의 현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도는 이달 '소비촉진의 달'로 지정해 탐나는전의 할인 한도를 개인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장은 "탐나는전의 현장 할인이 부득이하게 일시 중단돼 불편을 겪은 도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도민 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 수혈에도 불구하고 할인 혜택이 오래가지 못할 것

이라고 추정되면서 다시 할인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 역시 현재 확보된 예산 소진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탐나는전을 지속할지 뚜렷한 청사진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확보된 탐나는전 관련 예산은 227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에서는 현장할인을 위한 100억원 뿐 아니라 기존 중단됐던 발급할인을 위한 90억7000만원도 확보됐다. 발급할인에는 국비 매칭 36억3000만원이 더해진다.

도는 현장할인 예산 100억원이 올해 10월 말 소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곧바로 발급할인을 추진하는데, 현장할인은 중단될 예정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도에 따르면 예산 확보가 어려워 중단된 현장할인이 다시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설상가상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모두 소모될 경우 발급할인도 중단된다.

결국에는 현장할인과 발급할인 모두 중단되면서 탐나는전 사용이유가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만 그려지고 있다. 윤승빈 기자



"매리골드 활짝 피었네"

봄이 지나고 여름날씨가 절정인 7일 오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보름꽃 농장에 매리골드 꽃이 활짝 피어 입장객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연합뉴스

도 올해 공동물류 사업비 6억 증액

제주도는 7일 공동물류 지원 사업비를 기존 10억원에서 16억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

해 제주도가 2011년부터 운송료, 창고 보관료, 상·하차료 일부를 지원 하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공동물류 지원 사업을 이용한 중소기업은 20

9개 업체, 물동량은 4월말 기준 1만 8839PLT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56.8%, 26.7% 증가했다. 도는 공동물류 지원사업 이용량 증가 이유를 올해 1월부터 운송료 지원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공유물류 플랫폼인 '모

당' 활성화에 따라 공동물류 이용절차가 간소화하고 물류기업 선정을 등록제로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배송 여건을 마련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동물류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은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김수환 기자

제주도, 성장유망 중소기업 모집

제주도는 오는 30일까지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성장유망 중소기업은 기술, 경영, 판매력, 고용환경이 우수하고 경영실적이 뛰어나며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도내 기업을 말한다.

모집 대상은 현재 도내에서 본사 및 주공장을 3년 이상 정상 운영중인 기업으로, 상시 종업원 수 5인 이상, 3개월 이상 재무제표가 작성돼 있어야 한다.

또 3년 평균 매출액이 제조업·운수업 4억원 이상, 건설업 40억원 이

상, 유통업 20억원 이상, 기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능력, 사회공헌도, 기술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2년간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 신용보증 수주료 인하, 각종 컨설팅,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성장유망 중소기업 262개를 선정해 지원해 왔다. 윤승빈 기자

제민일보 창간 33주년을 축하합니다.

청정에너지로 미래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